

어머니의 돼지꿈

김복슬

교향집은 ㄷ 자 모양의 초가집이었다.

남향인 본채를 중심으로 위채가 동쪽으로 앉았고, 서쪽에는 작은 방과 외양간이 들어있는 아래채가 앉아있었고 가운데에 넓은 마당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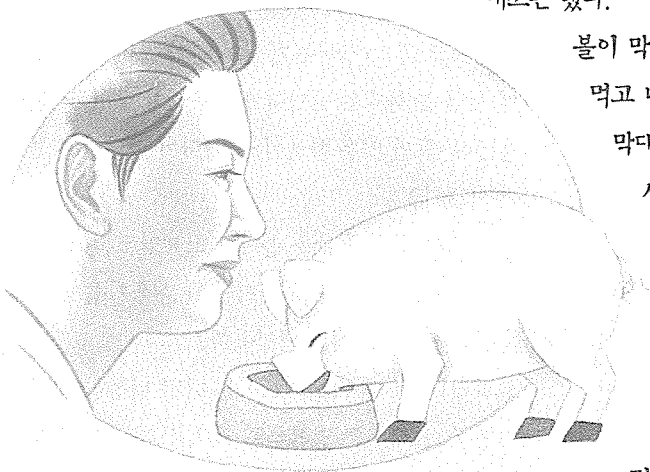
본채와 아래채가 ㄱ 자로 앉은 사이에는 땀감으로 쓰는 나무 단을 짙어놓는 곳이었는데, 나무 단 옆에는 돌담에 붙여 만든 돼지우리가 있었다.

우리 속에는 뽀뽀한 검은 털을 가진 돼지가 한두 마리 들어있어, 사람이 다가가면 꿀꿀대며 주둥이를 들어 올려 나무 울타리 사이로 순한 눈빛을 보내곤 했다.

돼지우리 옆에는 작은 단감나무 한 그루가 서있었고, 그 옆에는 무성한 가지들 자랑하는 앵두나무도 한 그루 있었다.

군것질거리가 귀했던 그 시절에 앵두는 훌륭한 간식거리였다.

동생과 나는 앵두나무 밑에 들어가 가지와 이파리에 얽힌 피부를 긁히면서 빨갛게 익은 앵두를 찾느라 애쓰곤 했다.



불이 막 붙어지기 시작하는 앵두까지 다 골라서 따 먹고 나면, 옆에서 꿀꿀거리는 돼지의 등을 나무 막대기로 긁어주기도 했는데, 그럴 때면 녀석은 시원해서 순한 양처럼 가만히 있었다.

녀석이 껍-껍 하고 시끄러운 소리로 울기 시작하면 끼니때가 되었다는 신호였다. 우리는 어른들의 흉배를 내어 자루 달린 나무바가지들 들고 부엌 옆의 구정물통에 들어있는 뿌연 드물을 퍼서 돼지 먹이통에 부었다.

그리고는 추녀 밑에 세워둔 자루에서 보릿겨 쫄음으로 기억되는 가루를 한바가지 떠서 돼지 먹이통에 부어주고는 마른가루가 거의 없어질 때까지 휘휘 저어주었다.

여름철에는 들에 나가 개구리를 잡아다 삶아서 돼지에게 주기도 했는데, 기다랗고 굵은 통나무로 만든 먹이통에 녀석은 코를 박고 찹찹거리며 맛있게 먹이를 먹어치웠다.

돼지는 자기 우리의 한 쪽에다 볼 일을 봤고 돌담 밑의 그늘에서 잠을 잤다.

돼지가 잠을 자는 돌담 밑에는 어른들이 언제나 뽕송뽕송한 뉘엿뉘엿을 깔아주었다.

돼지를 더러운 가축쫄음으로 생각해서 지저분한 곳을 '돼지우리 같다' 고들 표현하는데 천만의 말 씀이다.

내 기억속의 돼지는 적어도 잠자리와 화장실은 구별해서 쓸 줄 아는 짐승이었다.

잠자는 곳인지 쓰레기장인지 구별이 안 되게 늘어놓는 사람보다야 돼지의 청결의식이 더 높지 아니한가.

그리고 살찌고 육심 많은 사람을 돼지 같다고 하는데 그건 맞는 말이다.

돼지는 아무거나 많이, 그리고 급하게 잘 먹는 동물이었다.

부엌에서 나오는 모든 음식찌꺼기를 먹어치웠고, 끼니때를 조금만 넘겨도 밥 달라고 꽤액~꽤 소리를 질러댔다.

밥 때를 넘겼을 때 질러대는 돼지의 그 시끄러운 울음소리를 참아낼 장사는 없을 것이다. 그렇게 비명예 가까운 소리를 질러대던 녀석이 조용해지면 실컷 먹어 배를 다 채운 녀석이 네다리를

쭉 뻗고 불룩한 배를 옆으로 눕힌 채 잠이 들었다는 뜻이다. 그러나 살이 쪼들 수밖에...

더욱더욱 살 쪼들 돼지는 결국 사람을 위해 자기의 본분을 다한 셈이 아닌가.

우리 집은 아래 위채 다 합쳐서 방은 세 칸 뿐이었는데, 아홉 남매와 조부모님과 아버지 어머니 해서 3대 열 세 식구가 함께 살았다.

그 열세 명의 식구 말고도 오륙십 평 되는 집에는 또 다른 가족들이 있었다.

아래채 외양간의 소 한 마리와(때때로 송아지가 태어날 때도 있었다) 돼지우리의 돼지 한두 마리(때로는 새끼를 낳아 대 여섯 마리의 돼지가 우리 속에서 꿀꿀거리릴 때도 있었다), 아래채 마루 밑에 넣은 닭장 속에 든 대 여섯 마리의 닭, 외양간 앞에 놓은 도끼장 속에 든 두어 마리의 하얀 도끼, 외양간 한 구석에 매어놓은 까만 염소 두어 마리 등이 그들이다.

그 좁은 공간에 어떻게 그렇게 많은 가족들이 아무 불편도 느끼지 못하고 당연한 듯이 함께 살아갈 수 있었을까?

아마도 담 너머에는 항상 바다가 보였고, 마루에 서면 눈 돌리는 곳마다 산봉우리가 보였고, 눈 들면 탁 트인 맑은 하늘이 늘 가까이 있었던 때문이 아닐까?

그래서 좁은 공간을 좁다고 느끼기도 전에 눈에 가득히 들어오는 넓은 자연 덕분에 마음이 늘 자유로웠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그 시절이 우리 집으로서는 가장 번성한 시기였던지, 아버지의 병환으로 가세가 기울고, 조부모님들이 돌아가시고, 언니 오빠들이 뿔뿔이 깎

지로 떠난 뒤에는 집이 늘 비어있는 것처럼 쓸쓸했다.

어머니와 나와 동생만 동그마니 남은 집에는 외양간이며 돼지우리가 늘 비어있었고, 구구거리며 마당을 돌아다니는 닭 몇 마리가 간신히 우리 집의 허허로움을 채워주고 있었다.

내가 우여곡절 끝에 언니들의 도움으로 고등학교에 진학했을 때, 같은 동네에 사는 삼촌과 숙모님들은 못마땅해 하며 곱지 않은 눈길을 보냈다.

“제집아(제집아이)가 고등학교 나와서 뭐할거요?”

하지만, 오빠의 병구원을 위해 부산의 병원에 가 계셨던 어머니의 생각은 달랐다.

“무신 소리고? 내 자숙 공부하는데 제끼장(잡기장) 한 권도 안 사준 사람들이 우찌 그런 말을 하노? 제집아라도 배울 만 하든 배우는 기 좋제.”

그리고 일학년 때, 내가 어찌다 학교에서 만원이 좀 넘는 장학금을 타오자 어머니는 그 돈으로 읍내 장에 나가 새끼돼지 한 마리를 사오셨다.

그리고 오랫동안 비어있던 돼지우리에 정성스레 짚을 깔고 돼지를 넣어 키우셨다.

밖에서 들어오면 집 뒤꼍에서 들려오는 돼지의 깔깔거리는 소리가 우리 집을 한결 풍요롭게 해주는 것 같았다.

돼지가 잘 자라서 거간꾼이 돼지를 장에 낼 때가 되었다며 두어 번 찾아왔을 때 돼지 값이 폭락을 했다. 값이 회복되기를 기다리기에선 돼지가 너무 커버렸던 것 같다. 어머니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적은 금에 돼지를 팔아야했을 때, 못내

서운한 기색으로 말씀하셨다.

“우리 딸 장학금 받아서 산 돼진데, 대학갈 때 등록금으로 쓸라했더마는...”

그리고 그 돼지를 팔아서 무엇을 하셨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딸의 대학진학은 까마득한 꿈이었을 테니, 아마도 당장에 필요했을 농약값이나 비료값으로 쓰시지 않았을까?

그때 혼잣말처럼 하셨던 어머니의 말씀이 언제나 가슴을 뭉클하게 한다.

한글도 못 깨치신 어머니가, 남들은 딸을 고등학교에도 보내지 않는 시대에 살면서 딸을 위해 대학등록금을 준비하고 싶어 하셨다는 것, 대학등록금이 얼마지도 모르면서 소를 팔아 등록금을 마련하던 시절에 새끼돼지 한 마리를 키우며 그런 꿈을 꾸셨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나는 늘 어머니께 감사한다.

매스컵에서 양돈에 관한 얘기를 접할 때마다, 천정집 앵두나무 옆의 돼지우리를 떠올린다. 그리고 그 돼지를 키우며 대학생이 될 딸을 그려보며 흐뭇해 하셨을 어머니를 떠올린다.

비록 어머니의 꿈은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티무니없이 떨어진 값에 돼지를 팔며 낙담하는 또 다른 어머니가 요즘은 안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본다.

소비자들에게는 돼지가 단순히 맛과 영양을 주는 대상에 지나지 않았지만, 키우는 사람들에게는 예나 지금이나 꿈의 원천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양돈**